

중국과 일본 한민족 학교의 민족 음악교육 연구*

Ethnic Music Education in Korean Schools in China and Japan

양 종 모**

Jong Mo Yang

초록 이 연구는 중국과 일본 한민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족 음악교육의 양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년 현재 이들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학교 음악교과서 18권에 실린 가창곡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연구대상 교과서는 북한 표준어(문화어)로 쓰여 있다. 둘째, 한민족 음악과 전통음악의 비중은 일본 측(97.8%, 10.1%)이 중국 측(66.6%, 7.9%)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셋째, 중국과 일본의 한민족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민족 음악들은 한국보다는 북한에 뿌리를 둔 음악이 많다. 넷째, 양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민족 전통 음악들은 겹박자 음악보다는 홑박자 음악이 더 많이 나타난다. 다섯째, 중국 한민족 교과서에는 중국 국가 음악이 다수(12곡) 실린 반면, 일본 한민족 교과서에는 일본 음악의 전통음악이 한 곡만 실려 있다.

주제어: 한민족 학교, 한민족 음악교육, 중국 한민족 학교, 일본 한민족 학교, 민족 음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spects of ethnic music education in Korean schools operating in China and Japan. In this study, I analyze the songs in 18 music textbooks used by Korean schools in China and Japan. The content of the analysis is about the language, region, rhythm, scale, and songs used in Korea.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usic textbooks of Korean schools operated in China and Japan are written in North Korean standard language (cultural language). Second, the proportion of Korean music is much higher in Japanese textbook (97.8%) than in Chinese textbook(66.6%), and in the propor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Japanese textbook(10.1%) is higher than in Chinese textbook(7.9%). Third, Korean traditional music used in Korean schools in China and Japan is more rooted in North Korea than in South Korea. Fourth, while Korean generally uses double beats, Korean traditional music used in Korean-Japanese and Korean-Chinese schools use more single beats than double beats. Fifth, music textbooks of Korean schools in China contain 12 pieces of music, such as the songs about the Chinese flag and the national song, while the music textbooks of the Korean school in Japan rarely deal with the music of Japan. Ethnic music education can make people have same experience rather than different one, and contribute to the uniqueness of all nations. In order for the divided Koreans become one, it is necessary to find and create a single national music.

Key words: ethnic music, national music, music education, Korean ethnic music.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2019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ya511@bnue.ac.kr

© 2019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All rights reserved.

<http://dx.doi.org/10.30775/KMES.48.4.181>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은 20세기 초 이후에 민족적 수난기를 보내 왔지만 각국에서 여전히 민족적 고유성을 지키고 발전해 오고 있다. 한민족이 사는 곳에서는 민족 학교를 만들어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의 전통 의상을 입고, 우리 음식을 먹으며, 우리 전통 음악을 즐기고 있다.

한민족은 세계 어디에 살건 한민족의 고유성을 계승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지켜나가는 대표적인 곳은 중국과 일본의 한민족들이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민족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하고 있다. 이 민족 학교들은 한국어, 사회, 과학, 수학, 음악, 미술 등 대부분의 교과를 한글로 가르치고 있으며,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 급 체제를 가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한민족 학교는 한민족 교육을 한다는 점 때문에 한국이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중국 한민족 학교(조선족학교)는 중국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이며, 일본 한민족 학교(조선학교)는 북한의 지원을 받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가 운영하는 학교라는 점 때문에 한국이 관심으로 가지고 접촉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 1992년에 중국과 수교를 하고, 2004년에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의 일원들이 한국에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한민족 교육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 있는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는 중국 연변대학의 김성희 교수가 2002년부터 중국의 교육과 음악교육을 소개하는 논문을 한국어로 발표했고(Kim, 2002; Jin, 2009; Jin, 2014), 양종모가 2016년에 일본의 조충련 음악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분석했다(Yang, 2016). 김성희 교수는 “중국의 교육제도와 조선족 초등학교 음악교육 현황”(2002)을 시작으로, “조선족 전통 음악교육의 현황과 전망”(2009), “조선족 민족 음악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2014) 등을 발표했으며, 이 논문을 통해 중국의 한민족 교육을 위해 변화되어야 할 교육 내용과 방법론을 제안한다. 김성희는 “음악교과서의 악곡은 민족 성격을 띤 내용이 되도록 선정하고, 교사를 위한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민족 교육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Jin, 2014, p. 224), 또 “민족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하며, 음악 시수가 확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 한다(Jin, 2009, p. 328).

양종모(Yang, 2016, pp. 166-167)는 일본 한민족 학교의 음악교과서를 분석하여 민족교육의 성격을 정리했다. 한민족 학교가 조충련의 산하에 있으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창곡은 이념적이고 민족주의 악곡이 다수 나타나지만 순수 예술을 지향하는 악곡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민족의 전통 장단이

일본 한민족 학교에서는 한국과는 다른 형태로 실려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양종모는 일본의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의 악곡에 대해 “한국과 유사한 전통 음악을 싣고 있지만 세세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Yang, 2016). 일본에서 민족 음악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다른 민족 음악을 배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일본의 한민족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악교과서를 분석하여 민족 음악교육의 양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일본의 한민족 학교는 모두 민족교육을 중요한 목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음악교과서에 실린 악곡에서 민족 교육 정체를 밝혀 본다. 한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악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과연 중국과 일본의 한민족 학교에서는 한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민족 음악을 배우고 있는가? 배우고 있는 악곡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세계의 한민족 음악교육의 통일 방안을 만드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국과 일본의 한민족 학교

한민족은 “한반도와 그에 딸린 섬에서 예로부터 살아온, 한민족어를 사용하는 통구스계의 몽골 종족”라고 정의한다(Daum Dictionary, 2019). 한민족은 한반도와 그 주변뿐만 아니라 전세계 180개국에 거주하고 있다.¹⁾ 한민족은 한반도에 계속 거주해 오다가 1860년대 이후에 외세의 침입과 기근 등이 겹쳐 한반도를 떠나는 인구가 급증했다. 이들은 외세에 의한 국가적 압제를 피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하와이, 멕시코, 쿠바 등 다양한 나라로 이주했다(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National Archives, 2019.). 그리고 1910년부터 1945년 일본의 강제합병 하에서 토지와 생산 수단을 빼앗긴 농민과 노동자들이 만주와 일본으로 대거 이주하였다, 이때 만주로 이주를 간 조선인이 25만 명 정도이며,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조선인들이 광산과 전쟁터로 갔다. 당시에 약 230만 명 정도의 조선인이 일본으로 갔으며, 해방 이후에 이들 중 일부가 귀국하여 2019년 현재 일본에는 약 79만 명 정도의 한민족이 살고 있다. 한반도 이

1) 재외동포는 총 180개국에 7,493,58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교부, 2019. 10. 8..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9552)

외의 지역 중 한민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옛 고구려 영토인 중국의 동북 3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으로 약 2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8).

해외에서 한민족 학교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중국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중국과 일본의 한민족 학교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일련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사 양성 과정과 교과서 개발 체제도 갖추고 있다.

중국의 한민족 학교는 중앙정부와 성(省)의 인가를 받아 정규 학교로 인정받고 있고, 무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한민족 학교는 북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라는 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수교를 맺지 않는 나라(북한)의 후원을 받는 한민족 학교에 대해 정규 학교의 인증을 하지 않아 갑종학교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한민족 학교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끊어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한민족 학교는 중국의 동북3성에 주로 분포하는데, 소학교는 길림성에 47개, 흑룡강성에 68개, 요령성에 17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중학교는 동북3성에 106개, 고등학교는 동북3성에 6개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Jin, 2014). 중국에는 조선 민족 대학인 연변대학이 있다.

그리고 일본의 한민족 학교는 전국에 소학교가 62개, 중학교가 38개, 그리고 고등학교가 11개 있으며, 동경에 민족 대학인 조선대학이 있다(Chung, 2005, p. 49). 중국과 일본의 한민족 학교 수가 <Table 1>로 제시한다.

<Table 1> The Number of Korean Schools in China & Japan

section nation	Reg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China	Dongbei	Jilin	47	42	1	1
		Heilongjiang	68	38	2	1(2-year College)
		Liaoning	63	26	3	None
	Total		178	106	6	2
Japan	All areas		62	38	11	1

2. 한민족 음악

음악교육에서 민족 음악 즉 애국주의, 국민주의, 그리고 민족 정체성 등에 대한 주

제는 최근 많은 연구가 있었다(Abril, 2007; Bartel, Dollof, & Shand, 1999; Bodnar & Gilboa, 2009; Brand, 2003; Herert, 2006; Ho & Law, 2003, 2009; Hollington, 2005; Jorgensen, 2007; Veblen, in press). 이 연구들 중에는 음악교육에서 세계화와 애국주의, 민족주의와의 관계성을 말하기도 하는데(Hebert, 2006; Ho & Law, 2009), 이 역할은 민족 정체성이나 애국주의 음악교육 과정의 내용에 의해 가능하기도 한다(Bartel et al., 1999; Brand, 2003; Ho & Law, 2003; Hollington, 2005).

민족 음악은 특정 민족의 특색이 드러나는 예술음악이나 본래 그 민족 가운데서만 행해지는 민속 음악을 막연히 총칭하는 이름이다. ‘막연히 총칭한다’는 의미대로 민족 음악은 ‘과정의 예술’로 존재한다(Cho, 1992, 8). 민족 음악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계속 변해간다. 노동은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할아버지가 민요조이고, 아버지가 뽕짝조(일본 엔카류)이고, 누나가 가곡조(서양식)이며, 우리들은 우중충한 짬뽕조이고, 끝으로 우리들 동생들은 팝송조”(No, 1991, p. 17)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음악을 우리 민족의 음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중국의 궁정 음악을 고쳐서 사용했던 ‘우리’의 궁정 음악이나 일본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전래 동요를 ‘우리’의 민족 음악으로 지칭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No, 1991, p. 15). 다시 말해 모든 전통 음악이나 현대 ‘우리’ 민족이 행하고 있는 음악을 ‘우리’ 민족 음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우리’ 민족은 한민족을 지칭한다. 한반도를 지키면서 역사를 이어온 한민족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자연환경과 문화 그리고 역사는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용된 음악이라고 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살아서 기능하면 그 민족만이 행하는 음악이 될 수 있고 그 자체로 민족 음악이 될 수 있다. 중국에서 건너온 악기들이 시간이 흐르면 향악기가 되고, 서양의 발성법을 한민족이 일정 기간 이상 부르면 우리의 발성법으로 바뀌고 우리들만의 소리로 거듭나게 된다. 따라서 시대를 통해 전해오는 음악인 우리의 전통 음악은 한민족 음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음악이 아닌 현재의 음악인 경우, 민족 고유의 언어나 악기를 활용하여 새롭게 만든 음악도 민족 음악으로 규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논의의 문제는 민족 음악을 하나로 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한반도는 분단되어 있어 민족 음악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No, 1991, pp. 16-17).

그러나 분단된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전통 음악이 있다면 그것이 고유성이 있는 것이라면 감히 한민족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60년이 넘었지만 그 이전에 한반도에서 살아남았던 전통 음악들이 현재도 살아남아 남과 북에서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면 한민족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런 음악들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음악 즉 한민족 음악이라고 칭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분단 전에 고유의 음악이 현대에 와서 남과 북에서 똑같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민족 음악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60년 이상의 분단으로 한국과 북한의 전통 음악은 다른 부분들이 상당하다.

한국은 전통 음악의 고유성을 지키는데 주력했고, 북한은 1960년대 이후 국악기를 서양 음계를 연주할 수 있는 개량악기로 발전시켜 한국과 북한은 국악오케스트라의 편성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판소리의 가치를 높여 계승하고 발전시켜 왔지만 북한은 판소리의 발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거의 연주되지 않고 있다(조선일보, 2001. 4. 29.). 음악에서 악기와 발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한국과 북한의 이에 대한 차이로 인해 전통 음악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는 그 실태에 대해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노동은은 한민족 음악의 고유성을 확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전통 음악 외 오늘날의 음악 중에서 우리 민족 공동체가 역사 과정에서 일본과 서양 음악에 종속되어 왔기 때문에 민족 음악의 고유성을 확립하는데 한계가 있다.”(No, 1991, p. 17) 세계가 근대화되던 시기였던 20세기 초 우리는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되었으며, 36년간 일본 문화 속에서 살았다. 이 시기에 일본풍의 음악이 우리 대중을 지배했으며, 학교에서는 일본인이 계획했던 음악교과서로 수업을 받았다.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에도 민족 음악을 만들거나 찾는 일에 소홀히 했다. 1960대 이후에 대학에 국악과를 설립하고, 국악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국악 연주자 지원, 국악 방송 개설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어, 한민족 음악 확립에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현재 우리는 민족 음악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한민족 음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민족 음악은 한민족 전통 음악, 전통 음악에 근거한 새로운 음악, 그 외에도 우리 민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음악 등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3. 한민족 음악교육

1) 한국의 민족 음악교육

한국 민족 음악교육의 상황은 국가 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한민족 음악과 관련한 언급은 1963년 공표된 제2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처음 발견된다. 목표에서 “애국 애족하는 마음과 ‘우리나라의 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 및 태도를 기른다.”라는 부분이 있다. 이 문장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라는 단어 속에 한민족 음악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단어를 바꿔 문장을 만들어 보면 “한민족 음악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 및 태도를 기른다.”라고 되고, 교육과정은 한민족 음악의 기초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1973년 공표된 제3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한민족 음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반 목표에서 “우리나라의 음악과 다른 여러 나라의 음악을 이해하고,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계승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를 기른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은 전통 음악이 포함될 수 있고, 전통 음악은 한민족 음악이 될 수 있다. 제3차 음악과 교육과정도 제2차와 유사하게 한민족 음악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81년에 공표된 제4차와 1987년에 공표된 제5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전통 음악이나 한민족 음악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음악성, 창의성, 그리고 풍부한 정서 등이 강조되는 순수한 미적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1992년에 공표된 제6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목표에서 음악성, 창의성, 그리고 풍부한 정서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더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더해진다. “다양한 전통 음악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우리 음악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도 유의하도록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1997년에 공표된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목표에서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라고 쓰고 있다.

다음 교육과정은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인데, 여기에서는 민족 음악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나, 우리의 문화나 문화유산, 음악 문화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되지 않는다. 2011년과 2015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이 되는 데 기여한다.”라고 하여 ‘우리 문화’라는 단어를 써서 한민족 음악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는 한민족 음악을 직접적으로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한국과 일본의 민족 음악교육

한국의 교육과정에는 전통 음악에 관한 전문 음악 용어(토리, 장단, 말붙임새 등)를 제시하고 있으며, 교과서에도 다양한 전통 음악을 싣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전통 음악을 원활히 지도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국악 전공자가 국악을 가르치는 국악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음악교과서에 실려 있는 한국 전통 음악의 비중은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8종 교과서 평균 32.3%로 나타나고 있다(Kim, 2014, p. 133). 중학교의 경우는 46.6%로 나타나며(Hyun, 2018, p. 85), 고등학교의 경우는 가창 중 국악이 24.4%를 차지한다(Hyun, 2014, p. 35). 음악교과서에서 국악의 비중은 제2차 교육과정에서 7.0%이던 것이 꾸준히 늘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40.1%에 달한다(Hyun, 2018, p. 85).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 민족 음악인 국악의 비중을 40%내외로 두고 있으며, 이는 음악을 통한 민족 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을 통한 민족 교육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나타난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²⁾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 학년 배워야 하는 문부성창가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문부성창가는 소학교 학년별 4곡씩, 6년 동안 24곡이다. 이 악곡들은 구전 전래 동요도 있지만 작곡된 악곡도 있다. 이 곡은 일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사와 가락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제1학년의 문부성창가는 일본을 상징하는 바다 노래인 ‘바다’(우미), 놀이 노래 ‘카타츠무리(달팽이)’, 일장기를 노래하는 ‘히노마루(日の丸, 일장기)’ 그리고 와라베우타(전래동요)인 ‘히라이타 히라이타 (피었네 피었네)’ 등이다(文部科学省, 2018, p. 54). 이 노래들은 일본에서 1900년 초기부터 불리던 국민 노래들이다.

한국이나 일본 모두 음악교육을 통해 국가나 민족을 담고 있는 음악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으며, 그것은 음악교과서에서 쉽게 찾아진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우리 동포는 민족을 경험하기 위해 어떤 음악을 배우고 있을까?

3) 중국 한민족 학교의 음악교육

중국 한민족의 ‘음악과 교육과정’에 민족 교육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교과 성질’에서는 음악교육이 나라, 민족, 시대의 문화발전 맥락 및 민족 성격, 민족정신을 갖게 하며, 음악과 민족성의 관계를 밀접한 것으로 보면서, 민족 정감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준다고 적시하고 있다(요녕성교육청 외, 2017, pp. 2-5). 이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교육이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이 교육의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게 만드는 과정이 된다. 목표에서도 이 점은 다시 강조되는데, 음악교육은 “애국주의 정서를 키우고 집단주의 정신을 강화한다.”라고 제시되고 있다(요녕성교육청 외, 2017, p. 10). 음악교육이 창의성과 미적감수성을 키우는 것과

2)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함께 국가와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조국 산천, 인민, 역사, 문화 및 사회 발전에 대한 찬미를 통해 학생들의 애국주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설명한다(요녕성교육청 외, 2017, p. 10). 민족 음악을 강조하면서 세계 음악에 관한 목표도 유사한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민족, 국가, 시대의 음악작품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그 속에 내포된 민족 품격과 정서를 감지하고 여러 민족의 음악전통을 이해하며 중화민족의 음악문화를 사랑하고 세계 타민족 음악을 습득함으로써 음악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한다.”(요녕성교육청 외, 2017, p. 10). 이는 음악교육을 통해 민족 음악과 함께 여러 민족의 전통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말하고 있다.

중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음악교육은 국가와 민족 사랑을 위한 음악인 동시에 창의성과 미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과정이며, 이에 더해 세계의 다양한 나라의 민족 음악을 수용하여 세계 타민족 음악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4) 일본 한민족 학교의 음악교육

일본 한민족 학교의 민족 음악교육은 한민족 학교의 현황과 음악교육 목표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본 한민족 학교는 1946년부터 설립하여 2005년 현재 일본 전역에 45개의 유치원, 62개의 초등학교, 38개의 중급학교, 11개의 고급학교 그리고 1개의 대학교(조선대학교)가 있다(Yang, 2016, p. 156). 한민족 학교는 우리 언어와 함께 민족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의식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1세기를 살아갈 자녀들이 일본은 물론 북한과 국제사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민족성과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한민족 학교는 교육과정(2003) 개편의 중점 사항에서 다시 민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국어, 조선 역사, 지리, 사회, 음악, 미술 등 민족성을 키우는 과목을 충실히 하고.....” 한민족 학교는 음악을 포함한 모든 교과를 통해 민족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중국과 일본의 한민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의 민족 교육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양국의 한민족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악교과서를 분석한다. 음악교과서는 음악교육의 실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면 음악 교과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은 중국과 일본의 한민족 학교에서 사용하는 음악교과서로 한다.

양국 한민족 학교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의 음악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중국 한민족 음악교과서는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동북3성의 한민족 학교에서 사용되는 음악교과서이며, 일본 한민족 음악교과서는 일본 학우서방에서 만들어 일본 전역의 한민족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이다.

중국은 매 학년 두 권의 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학교 6년 동안 교과서가 12권이고, 일본은 매 학년 한 권의 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6년 동안 교과서가 6권이다. 연구 대상은 총 18권이다. 모든 교과서의 초판 연도는 일본의 경우 2003년도이며, 중국의 경우는 2004~2017년 것으로 하되, 2019년 현재 한민족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악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Table 2>에 연구 대상인 교과서의 특성을 정리했다.

<Table 2> Music textbooks of Korean Schools in China & Japan

	China	Japan
Region of Use	Liaoing, Jilin, Heilongjiang	All areas
Language	North Korean	North Korean
Stage(Grade)	Elementary School(Gr. 1-6)	Elementary School (Gr.1-6)
Number of Textbooks(pages)	12 volumes (each 32~44 pages)	6 volumes (each 56 pages)
1st edition year (Currently in Use)	2004~2017 (2019, Currently in Use)	2003(2019, Currently in Use)
Publisher	Yeonbyunchulpansa	Hackwooseobang
Number of Songs(N)	126	139

분석은 음악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가창곡으로 한다. 가창곡의 가사는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통 음악도 있어서 이런 음악들을 다면적으로 분석하면 음악교육의 성격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악곡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악기 연주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민족교육을 이해하는 데 상대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제외한다. 분석 대상인 악곡 수는 <Table 2>에 제된 것처럼 중국은 126곡이며, 일본은 139곡이다.

2. 분석 내용과 방법

1) 가창곡 가사의 언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한민족 교육의 핵심 중 하나는 언어 교육이다. 한반도 이외에 있는 대부분의 한민족 학교가 언어 교육원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민족교육에서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이 연구의 주제는 음악과 관련되고 있지만 민족교육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먼저 사용되는 언어가 한국 표준어인지 북한 표준어인지를 밝힌다. 한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북한표준어는 ‘문화어’라고 하여 “주권을 잡은 노동계급의 당의 령도 밑에 혁명의 수도(평양)를 중심지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노동계급의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언어”라고 정의하고 있다(Wikipedia, 2019).

중국 한민족 학교의 음악교과서와 일본 한민족 학교의 음악교과서는 모두 한글을 사용한다. 분석의 내용은 교과서에 사용된 한글 단어 중 북한 표준어 ‘문화어’인 것이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문화어’에 맞는 단어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두음법칙을 적용하고 있는지, 예를들어 지명을 ‘러시아’, ‘폴란드’라고 하는지 문화어인 ‘로씨야’, ‘뽈스키’라고 하는지 등을 찾아 언어의 근거를 파악한다.

2) 한민족 음악의 성격

한민족 음악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악곡의 지역, 박자와 음계, 그리고 한국에서 활용 상황 등을 파악한다. 악곡의 지역은 악곡이 만들어진 지역을 한국 또는 북한, 중국, 일본, 그 외 외국 등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의 비중을 파악한다. 음악교과서에서 한민족 음악, 거주지역, 그리고 그 외 지역의 음악 등의 비중을 파악하고 그 비중에 근거하여 중요도를 측정한다.

악곡의 지역은 작곡가의 국적으로 판단한다. 여기에서는 한민족 음악의 경우 전통 음악과 새로 작곡된 음악을 구분한다. 전통 음악은 교과서에서 민요나 전통 음악이라고 표기한 음악으로 구분한다. 이 전통 음악은 한민족 음악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 비중을 분석한다.

박자와 음계를 분석한다. 박자는 악보에 기록된 대로 정리하고, 음계는 가락에 나타나는 음들을 나열하고 끝음의 계이름으로 음계를 파악한다. 예를 들은 흥남파의 '고향의 봄'은 4/4박자이며, (도)레미파솔라도³⁾ 음계이다. 각 음악의 박자와 음계를 파악하고, 그것이 한민족전통 음악의 박자와 음계와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5음 음계인 경우는 한민족 음악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박자에서는 겹박자 홑박자를 구분하여 보았으며, 한국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민요 리듬꼴을 함께 분석한다.

그리고 한민족 음악의 한국 관련성은 한국전통 음악들이 한국의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음악 인지를 기능한다. 이는 해외 동포들이 현재 한국에서 가르치는 한국음악을 가르치는지 북한이나 거주 지역의 음악을 가르치는 지를 눈여겨보았다. 여기에서 해외 동포들의 배우는 한민족 음악이 현재 한반도에서 배우는 음악과 동일한 것인지를 한국의 음악과 비교한다.

3) 거주국 음악의 성격

중국 한민족 학교와 일본 한민족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살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 한민족이지만 국적은 중국, 일본, 한국 등이다.⁴⁾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한민족 학교 교육은 민족 교육과 함께 거주국 혹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한 음악 문화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거주국의 전통 음악이든 새롭게 작곡된 것이건 혹은 거주국의 언어로 된 것일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민족 음악교육을 보면서 거주국에 대한 음악을 제시하는 양태도 조사한다. 즉 거주국의 음악의 비중, 그 음악의 성격, 그리고 사용 언어 등을 파악한다.

3) 음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 괄호의 음은 마지막 음이다.

4) 중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국적은 대부분 중국이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조선적'으로 구분된다. 한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고, 일본인은 일본으로 귀화한 한민족이다. 그리고 '조선적'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민족 중 한국이나 일본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민족이다.

IV. 분석 결과

1. 사용 언어

중국과 일본 한민족 학교의 음악교과서는 표지부터 내용 끝부분까지 한국어로 만들어져 있다. 단원 제목이나 음악의 제목, 가사 그리고 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 등 모두 한국어이다. 음악교과서는 음악 수업을 통해 한국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중국 한민족 학교 소학교의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가창곡, 일본 한민족 학교 소학교 음악교과서의 가창곡들은 모두 한국어 가사로 쓰여 있다.

중국과 일본 한민족 학교의 음악교과서에 쓰여 있는 한국어는 한국의 한글 표준어가 아닌 단어들이 발견된다. 교과서에 쓰이는 용어 중 로씨아(러시아), 폴스키(폴란드), 카스타네트(캐스터네츠) 등의 외래어, 래일(내일), 령도하다(영도하다) 등은 문화어를 쓰고 있다.⁵⁾ 즉 교과서는 한국의 표준어가 아닌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를 쓰고 있다.

2. 한민족 음악의 비중과 특성

연변교육출판사가 출판한 중국의 한민족 음악교과서에는 한민족 전통 노래가 7.9%, 한민족이 작곡한 노래가 58.7%를 차지하여 전체의 66.6%가 한민족 음악이다. 그 외 노래는 중국의 전통 노래는 1곡에 그치며, 중국의 국가나 국기를 찬양하는 노래인 중국 국가 관련 음악이 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독일과 같은 외국의 노래가 23.8%의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에는 조선족 음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은 타국(대부분은 서양)의 음악이, 그리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 음악이다. 음악교과서에 중국어로 제시된 노래는 한 곡도 없다. 중국 한민족 학교의 음악교과서는 한민족 음악을 과반수 이상 싣고 있어 크게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거주국 음악은 그 비율이 외국의 노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한민족 학교의 음악교과서에는 한민족 음악이 97.8%로 거의 대부분이다. 한민족 음악 중 한민족 전통 음악은 10.1%이며, 87.8%가 조선인이 작곡한 노래이다. 일본 한민족 학교에서는 한민족 음악을 가르칠 때 전통 음악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음악을 더 선호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일본의 한민족 학교는 일본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일본 노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찾아보았지

5) 문화어는 북한의 표준말이다. 1966년 이후 확립된 북한의 규범적인 언어로서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를 대신한다.

만 일본의 전통 음악은 일본 소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와라베우타(전래동요)인 ‘히라이타 히라이타(피었네 피었네)’ 한 곡이다. 이 노래는 교과서에 제목과 삽화로만 제시되어 있으며 악보는 없다. 일본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에는 다른 나라의 음악을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 <Table 3>은 중국과 일본 한민족 학교의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가창곡의 한민족 음악 현황이다.

<Table 3> Korean Music Used in Music Textbooks of Korean Schools in China & Japan

Kinds	Korean Music		Music of China & Japan		Foreign music
	Korean Traditional	Newly Composed by Korean	Traditional	Contemporary	
China(126)	10	74	1	11	30 (4 Japanese Music)
	7.9%	58.7%	0.8%	8.7%	23.8%
	66.6%		9.5%		23.8%
Japan(139)	14	122	1	0	2
	10.1%	87.8%	0.7%	0%	1.4%
	97.8%		0.7%		1.4%

한민족 학교의 음악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한민족 음악은 어떤 내용인지 한 곡 한 곡에 대한 음악적 특징과 한국 음악교과서의 탑재 여부 등을 살펴본다. 우선 중국 한민족 학교의 음악교과서에 제시되는 한민족 음악은 한민족 전통 노래와 한민족이 작곡한 노래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한민족 전통 노래는 한반도에서 예부터 불리어진 음악으로 5음 음계 가락과 특징적인 리듬을 담고 있다. 이 노래들은 현재 한국과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연주되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연변교과서 1학년 1학기 5쪽에 제시된 전래 동요 ‘꼭꼭 숨어라’는 한국의 ‘즐거운 생활’ 교과서 2학년 1학기(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2001, pp. 24-25) 실렸던 악곡이며, 현재에도 많은 교과서에 실려 있고, 실제로 불려지고 있는 악곡이다. 중국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 6학년 2학기 22쪽에 실린 ‘도라지’는 한국의 음악교과서에서도 실려 있다(Lee, 2017a, 155), ‘아리랑’은 한국의 음악교과서와 북한의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실려 있다(Bae, 2012, p. 68). 중국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에 실려 있는 10곡의 민요 중 8곡은 한국의 음악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즐겨 부르는 악곡이며, 2곡은 한국에서 별도로 연주되거나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 곡이다.

그런데, 중국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한민족 민요는 한국에서 연주되거나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그것은 박자이다. 한국에서 민요는 대부분 3소박이 나타나는 겹박자인 6/8, 3/8, 12/8 박자 등인데, 중국에서는 2/4, 3/4, 4/4 등으로 나타난다. 물론 ‘꼭꼭 숨어라’와 ‘어깨동무’는 12/8박자이지만 ‘풍구 타령’, ‘풍년가’, ‘노들강변’, ‘도라지’ 등이 모두 한국과 다르게 홑박자로 제시되어 있다. 중국 한민족 학교의 음악교과서에는 한민족 음악을 한국과는 다른 음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본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에 한민족 민요(구전동요 포함)는 전체 139곡 중 10.1%인 14곡이다. 14곡 중 한국에서 발견되는 악곡은 ‘새야 새야’, ‘양산도’ 두 곡 정도이며, ‘옹헤야’를 비롯한 다른 곡들은 한국에서 불리는 것과는 다른 악곡이다. 그리고 전통 음악은 홑박자 곡이 월등히 많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의 민요는 대부분 겹박자인데, 중국 한민족 학교 교과서에서 제시된 민요는 3곡을 제외하고 11곡은 전부 홑박자이다. 한국에서는 우리의 전통 음악이 겹박자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중국이나 일본의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에는 그런 이론이 잘 맞지 않는다.

중국이나 일본의 한민족 학교 교과서에서 제시된 민족 음악은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민족 음악과 박자가 다르고 일부는 제목은 같으나 음악이 전혀 다른 것들도 있다.

<Table 4> Korean Traditional Music in Music textbooks of Korean Schools in China & Japan

Section	Chinese Textbook	Japanese	Supplement
Total Number of Songs	126	139	
Number of Korean Traditional Music	10(7.9%)	14(10.1%)	1-2 Songs for Each Grades
Scale	Pentatonic	Pentatonic	
Compound Meter: Simple Meter	3:7	3:11	High Portion of Simple Meter
Music in Korean Textbooks	6	3	.

3. 중국, 국가 교육을 위한 가창곡

중국 음악교육과정 표준에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는 교육 방침”에 따라 교과서에 중국 국가나 조국 혹은 당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창 음악 중 중국의 상징, 문화, 역사, 사회 등을 다루거나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1학년 1학기에 '오성 붉은기' 2학기에는 '노래 부르자 우리네 꽃명절'이 제시된다. 가사는 중국의 국기를 묘사하고, 국가 명절을 기린다. 그리고 2학년 1학기에는 다시 '오성 붉은기'가 제시되고, 2학기에는 중국의 민요 '수건 돌려라'가 실려 있다. 3학년에는 항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항일 가요'와 중국의 국기 오성홍기에 관련된 노래인 '길이 빛낼 오성 붉은기', 4학년에는 조국의 대를 이어가자는 '대를 이어 가꾸어 나가자'와 조국을 찬양하는 '사랑스런 조국' 5학년에는 모택동을 찬양하는 '우리는 행복해요'와 나라의 책임을 진다는 '소년소년 조국의 봄날' 그리고 6학년은 중국 찬가인 '우리 집은 중국'과 공산당 찬가인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갈래요' 등이 있다.

정리하면, 중국 국가 음악은 한 학기 당 2개씩 가창곡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국가 상징을 찬양하는 것, 조국에 대한 사랑이나 헌신을 미화하는 것, 영웅을 찬양하는 것 등이다. 저학년에서는 5음 음계로 된 것들이 많은데, 3학년 2학기부터는 7음 음계로 된 노래들이 등장한다. 음계를 기준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전하고 있다. 각 학년별로 중국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의 국가 교육을 위한 가창곡 제목(학기)/작사가/작곡가/음계/가사의 내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1학년

- 오성 붉은기(1)/서호/최광춘/(솔)라도레미/오성홍기 찬가
- 노래 부르자 우리네 꽃명절(2)/전광하/김범도/(도)레미솔라/중국의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노래

② 2학년

- 오성 붉은기(1)/서호/최광춘/(솔)레미솔라/오성홍기 찬가
- 수건 돌려라(2)/중국민요/중국민요/(도)레미솔라/중국 놀이 노래

③ 3학년

- 어린 동무 노래 부르자(1)/항일가요/항일가요/(도)레미솔/로동 주권 강조
- 길이 빛낼 오성 붉은기(2)/김득만/최동혁/(도)레미파솔라/오성홍기 찬양

④ 4학년

- 대를 이어 가꾸어가자(1)/김선파/박홍화/(라)도레미솔라/조국 가꾸기
- 사랑스런 조국(2)/김득만/김득진/(도)레미파솔라시도/조국찬가

⑤ 5학년

- 우리는 행복해요(1)/김범/정률성/(도)레미파솔라시도/모주석 찬양
- 소년소년 조국이 봄날(2)/리유용/기명/(도)레미파솔라시도/사회를 책임지는 소년

⑥ 6학년

- 우리집은 중국(1)/김용준/김득진/(도)레미파솔라시도/중국찬가
-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갈래요(2)/김득만/리민자/(도)레미파솔라시도/공산당찬가

4. 일본, 가창곡 가사의 특성

일본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의 가창곡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가사의 내용을 분석한다. 가사는 순수 서정시와 목적시로 구분하고, 순수 서정시는 내용에 따라 음악, 가족, 자연, 놀이, 생활 등으로 구분하고, 목적시는 공동체를 위한 것, 학교에 대한 찬양, 국가 찬양, 인물 찬양, 통일 등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가창곡의 가사는 순수 서정시가 47.5%이며, 목적시가 52.5%로 목적시의 양이 조금 더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적시의 비중이 애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0%인 것과 비교하면 일본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의 목적시의 비중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6학년에 '바다의 노래'가 나온다. 이 노래는 조선 영웅 찬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수평선 저 멀리 흰구름 타고 두둥실 우리 마음 날아만 가네. 갈매기야 너도 알리 이 바다를 지켜 원수들을 쳐 물린 영웅 형님들 아 노래하자 조국의 바다 너는 너는 겁모르는 동해의 갈매기 나는 나는 씩씩한 바다의 아들.”(바다의 노래. 6학년, 14쪽)

이 노래는 “수평선 저 멀리 흰구름 타고”로 시작하니 서정시의 분위기이다. 그러나 다음 문장에 “이 바다를 지켜 원수들을 쳐 물린 영웅 형님들”을 말한다. 이 시는 국가를 지키다 희생한 영웅들을 기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목적시로 분류한다.

또 다른 예는 6학년의 민요 ‘풀무타령’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로 분류할 수 있는데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풀무야 풀무야 푸르락 딱딱 풀무야 십년을 하루같이 호미 낫을 버리어도 우리 마을 소작농들 배부른 날 없었네 농군들이 피땀흘려 지어 놓은 옥백미는 앞마을 황지주 놈 뒤 창고에 있단다.....”(풀무타령. 6학년 12쪽)

이 가사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면서 평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결국 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르게 보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순수 서정시 중에는 가정에 대한 것도 있다. ‘꽃과 같이 피어난 정성’이란 노래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천송인가 만송인가 진달래 꽃송이 송이 어머님께 바친 정성 꽃과 같이 피어났네. 아
송이 송이 꽃과 같이 피어났네”

이 노래는 목적시의 관계를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표면적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활짝 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분류하여 가사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가 <Table 5>과 같다.

<Table 5> The Characteristics of Lyrics in the Music Textbooks of Korean Schools in Japan

Kinds	Pure lyrics					Lyrics for purpose				
Section	Music	Family	Nature	Play	Life	Community	Schools	Korean Praise	Hero Praise	Korean Unification
	8	2	29	23	4	22	7	29	10	5
139	66(47.5%)					73(52.5%)				

5. 외국 가창곡

가창곡에서 외국의 가창곡은 중국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에는 23.8% 일본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는 1.4%이다. 일본의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에는 외국 가창곡 총 악곡 수가 3곡이며, 일본,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등이 전부이다. 이 곡들은 교과서에 악보도 없이 놀이 장면만 그려져 있다. 일본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에서는 외국 가창곡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의 경우는 외국 가창곡이 전체의 23.8%를 차지하며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까지 분포하고 있다. 유럽은 독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등과 미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일 전쟁으로 아픈 기억이 있는 일본의 가창곡도 1, 2학년과 5, 6학년에 실려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일본의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는 한민족 음악에 한정하다시피하고 있지만 중국 한민족 학교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음악을 수용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민족 학교의 민족 음악교육의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2019년 현재 중국과 일본의 한민족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악교과서 18권에 실린 가창곡을 분석한다. 분석의 내용은 악곡의 언어, 박자와 리듬, 가사 내용, 그리고 악곡의 한국에서의 활용 등에 관한 것이었다.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민족 학교의 음악교과서는 북한 표준어로 쓰여 있다. 대부분의 문자는 차이가 없지만 두음법칙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래일, 령도하다)과 일부의 국가명(로씨야, 뽀스키, 뽀르끼예)이 차이를 보이는 정도를 통해 언어는 북한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정리한다.

둘째, 한민족 음악의 비중은 양국이 모두 높으나, 일본 측(97.8%)이 중국 측(66.6%)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민족 전통 음악도 일본 측(10.1%)이 중국 측(7.9%)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실천되고 있는 한민족 교육은 우리의 음악의 비중을 매우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특히 비중이 높다.

셋째, 중국과 일본의 한민족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민족 음악들은 한국보다는 북한에 뿌리를 둔 음악이 많이 나타난다. 1) 일부의 전래동요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노래들이지만 대부분의 민요는 같은 제목이라도 박자나 가사 등이 다른 곡이다. 우리나라에서 민요는 대부분 겹박자인데, 중국의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에는 홑박자가 월등히 많다. 2) 중국에서 불리는 노래와 한국에서 불리는 노래가 같은 노래는 ‘꼭꼭 숨어라’, ‘어깨동무’, ‘아리랑’ 등이며, 같은 이름이지만 가사나 박자가 다른 것은 ‘풍구타령’, ‘풍년가(홑박자)’, ‘노들강변(홑박자)’ 등이다. 3)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실리지 않고 있는 ‘홀라리’, ‘돈돌라리’ 등도 실리고 있다. 중국 동포들은 한민족 음악을 배우고 있지만 한국의 음악과는 다른 민족 음악을 다수 배우고 있다.

넷째, 일본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에서 나타나는 한민족 음악의 성격은 한국과 더 이질적이다. 14곡이 한민족 전통 음악인데, 이중 한국에서 불리는 음악과 동일한 음악은 ‘새야 새야와 ‘양산도’ 두 곡이다. 다른 곡들은 한국에서 부르는 음악이 아니거나 다른 박자나 가락으로 부른다.

다섯째, 중국 한민족 교과서에는 중국 국기나 조국 찬가 등의 악곡(12곡)을 실어 거주국인 중국 국가 의식교육에 일부를 할애하고 있지만, 일본 한민족 교과서에는 거주국인 일본국의 음악은 전래동요 한 곡만 실고 있다. 한민족 동포 교육에 있어 민족교육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거주국의 음악 문화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조사에는 양국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중국과 일본 한민족 학교의 음악교과서에서는 민족 음악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민족 음악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다루고 있는 민족 음악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노래에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 홉박자와 겹박자의 차이, 가창곡의 가사의 내용 차이, 다루고 있는 악곡의 차이 등이다.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한민족 음악교육은 민족의 정체성을 기르는 교육이어야 하며, 두 개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중국과 일본 한민족 학교에서는 한국과는 다른 북한의 음악에 치우친 경험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한민족 구성원들은 남이나 북으로 분리되지 않고 통일된 민족 음악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백승애 (2007). 중국의 대조선족 정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아태지역연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요녕성교육청, 길림성교육청, 흑룡강성교육청 (2017). **의무교육한민족 학교 음악과정표준**. 길림성 연길시: 연변출판사.
- 文部科學性 (2018). **小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音樂編)**. 日本 東京: 株式會社東洋館出版社.
- Abril, C (2007). Functions of a national anthem in society and education: A sociocultural Perspective. *Bulletin of the Counci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72, 69-87.
- Bae, I. G. (2012). A study of folksongs' education in senior middle schools of north Korea. *The Society of Korean Folk song*, 35, 61-94.
- Bartel, L., Dollof, L. -A., & Shand, P. M. (1999). Canadian content in school music curricula: A research update. *Canadi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0(4), 13-20.
- Bodnar, E., & Gilboa, A. (2009). What are your thoughts when the national anthem is playing? An empirical exploration. *Psychology of Music*, 37(4), 459-484.
- Brand, M. (2003). Dragons in the music classroom: Political and philosophical subtexts in Chinese school music textbooks. *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58, 72-80.

- Cho, S. W. (1992). Cogito: Korea and Korean music. *Journal of Society for Music and Korea*, 4, 5-8.
- Choi, Y. G., Im, C. W., Kim, J. G., & Kim, K. I. (2001). A Study on Korean unification and the ethnic Koreans in China's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20), 87-114.
- Choi, Y. R. . (2002). A characteristics of the song - and - dance performance "Dondolari" in north Korea. *Korean Journal of History Physical Education, Sports and Dance*, 9, 1-15.
- Chung, C. S. (2005). Formation and changes of chongryun.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14(4), 33-62.
- Han, Y. Y. (2015). A study on the teaching Korean folk song on school music textbook based on the curriculum revised in 2009 - Focused on the 5~6th grades of the elementary school. *The Society Of Korean Folk Song*, 43, 175-221.
- Hebert, D. (2006). Rethinking patriotism: National anthems in music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for Arts Education*, 4(1), 21-50.
- Ho, W. C., & Law, W. W. (2003). Music education in Taiwan: The pursuit for 'local' and 'national' identity. *Journal of the Indian Musicological Society*, 34, 83-96.
- Ho, W. C., & Law, W. W. (2009). The struggle between globalization, nationalism and music education ion Hong Kong. *Music Education Research*, 11(4), 439-456.
- Hollingo, N, (2005). Recurring motifs: Canadian music in education-Canadian identity and Canadian music in the classroom. *Canadian Music Educator*, 47(2), 10-11.
- Hyun, K. S. (2014). A historical study of Korean traditional songs in the textbooks for high schools according to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2(3), 35-49.
- _____ (2018). The history of changes in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contents in the junior high school music textbooks. *Educational Research*, 71, 85-109.
- Jeng, Y. S. (2013). Study on Hurali, the folk rhyme spread to dual

- nationality community. *The Journal of Korean Music and Korean Music Education*, 35, 129-149.
- Ji, C. N., Park, C. Y., & Piao, R. H. (2007). The comparison of networks for Mindan, Chongryon, and Haninhe. *Center for Global Diaspora Studies*, 8, 387-418.
- Jin, C. J. (2009). The status and the looking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Music and Education*, 28, 301-331.
- _____ (2014). Current study of Korean-Chinese ethnic music education and development research. *The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Research*, 8(2), 195-228.
- Jorgensen. E. R. (2007). Songs to teach a nation.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Review*, 15(1), 150-160.
- Kim, H. J. (2014). The analysi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music textbook based on the 2009 educational curriculum revision. *Educational Research*, 60, 133-163.
- Kim, J. G. (2004). A study on the identity of Koreans in Japan.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9(4), 265-280.
- Kim. S. H (2002). The education system of China and the current status of primary music education of Korean-Chinese. *The Journal of Education* Vol. 29, 449-474.
- Lee, D. B. (2017). Chongryon identity as represented in Chongryong Korean language textbooks.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8(2), 247-266.
- Lee, S. K. (2017). A study on the change of elementary Korean music songs from the textbooks. *The Journal of Korean Music and Korean Music Education*, 44, 145-172.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2001).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music curriculum standards (1955-1997)*.
- No. D. E. (1991). Korean music: A history and prospect of national music in Korea. *Journal of Society for Music and Korea*, 1, 10-18.
- Park, K. S. (2011). Education for Koreans abroad and attitude of education for Korean language. *Journal of Koreanology*, 7, 9-35.
- Veblen, K, K. (in press). ‘We stand on guard for thee’: National identity in

Canadian music education. In D. Herbert & A. Kertz-Welzel (Eds), *Patriotism and nationalism in music education*. Farnham, UK: Ashgate & Gower.

Yang, J. M. (2014). The study of the meaning and learning contents of national education songs in Singapore primary school's music textbooks.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21, 27-47.

_____ (2016). The aspect of national education in the music education of Chosun Chongryon.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4(4), 151-169.

[중국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

김창진(주편) 외 (2018). **의무교육한민족 학교교과서 음악 1학년 상권**. 길림성 연변시: 연변교육출판사.

김춘근(주편) 외 (2017). **의무교육한민족 학교교과서 음악 1학년 하권**. 길림성 연변시: 연변교육출판사.

김춘근(주편) 외 (2018). **의무교육한민족 학교교과서 음악 2학년 상권**. 길림성 연변시: 연변교육출판사.

김춘근(주편) 외 (2015). **의무교육한민족 학교교과서 음악 2학년 하권**. 길림성 연변시: 연변교육출판사.

김춘근(주편) 외 (2018). **의무교육한민족 학교교과서 음악 3학년 상권**. 길림성 연변시: 연변교육출판사.

김춘근(주편) 외 (2018). **의무교육한민족 학교교과서 음악 3학년 하권**. 길림성 연변시: 연변교육출판사.

김춘근(주편) 외 (2018). **의무교육한민족 학교교과서 음악 4학년 상권**. 길림성 연변시: 연변교육출판사.

김득진(편집자) 외 (2017). **의무교육한민족 학교교과서 음악 4학년 하권**. 길림성 연변시: 연변교육출판사.

김춘근(주편) 외 (2018). **의무교육한민족 학교교과서 음악 5학년 상권**. 길림성 연변시: 연변교육출판사.

김득진(편집자) 외 (2018). **의무교육한민족 학교교과서 음악 5학년 하권**. 길림성 연변시: 연변교육출판사.

김득진(편집자) 외 (2018). **의무교육한민족 학교교과서 음악 6학년 상권**. 길림성 연변시: 연변교육출판사.

김득진(편집자) 외 (2017). **의무교육한민족 학교교과서 음악 6학년 하권**. 길림성 연변시: 연변교육출판사.

[일본 한민족 학교 음악교과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과서편찬위원회 (2011). **음악 초급 1**. 일본 동경: 학우서방.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과서편찬위원회 (2009). **음악 초급 2**. 일본 동경: 학우서방.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과서편찬위원회 (2011). **음악 초급 3**. 일본 동경: 학우서방.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교과서편찬위원회 (2011). **음악 초급 4**. 일본 동경: 학우서방.

학우서방 교과서편찬위원회 (2013). **음악 초급 5**. 일본 동경: 학우서방.

학우서방 교과서편찬위원회 (2013). **음악 초급 6**. 일본 동경: 학우서방.

[웹 사이트]

Daum Dictionary (2019). *The Han Race*. Retrieved September 07, 2019 from <https://dic.daum.ne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9). *Statistics on the population of overseas Koreans*. Retrieved October, 08, 2019 from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9552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National Archives (2019). *Changes in Koreans Overseas*. Retrieved, September, 06, 2019 from [http://theme.archives.go.kr/next/immigration/transition.do\(Date of connection](http://theme.archives.go.kr/next/immigration/transition.do(Date of connection)

Wikipedia japan Dictionary 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Retrieved November, 10, 2016 from <https://ja.wikipedia.org>.

Wikipedia(2019). *North Korean standard language*. Retrieved September. 09, 2019 from https://en.wikipedia.org/wiki/North_Korean_standard_language

조선일보 (2001). 북한엔 판소리가 없다.. 김일성이 폄하. [NK리포트] Retrieved April, 29, 2001. from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1042970327

Received: 31 August 2019, Reviewed(Revised): 4 October(10 October) 2019

Accepted: 24 October 2019, Published: 30 November 2019

Jong Mo YANG: E-mail: ya511@bnue.ac.kr

Professor,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4, Gyodae-ro, Yeonje-gu, Busan, Korea

